재학생 335명 장흥실고 자격증만 402개

'문제학교'의 대변신

교사 체계적 교육 성과…학생 1인당 1.2개

'이미지 쇄신' 교명 개명…명문 만들기 박차

결손가정으로 인해 문제학생들이 많아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아온 한 실업고등학교가 지도교사들의 체계적이고 정열적인 학습지도에 힘입어 괄목한 만한 변신을 하고 있어 화제다.

9일 장흥실업고등학교(교장 문종식)에 따르면 지난 1970년 3월 개교해 올해로 40년 역사를 맞은 장흥실고는 10월 말 현재 전체 재학생 335명이 402개(학생 1인당 평균 1.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과 1학년 31명은 입학한 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182개(학생 1인당 평균 5.9개)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장흥실고는 내년에 전교생 1인당 2.5개(250%)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학년은 컴퓨터관련자격 취득지도, 2학년은 전공관련자격 취득지도, 3학년은 의무 검정관련자격 취득지도와 현장실습 지도인 다자격 취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3년 후 학생 1인당 20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2만원의 수당까지 지급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학과 1학년 김도현(16)군이 가장 많은 21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김재영(16)군이 15개, 윤남기(16)군이 14개를 땄다. 10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만도 7명에 달한다. 또 MOS(마이크로소프트사 국제공인 자격증)나 ICDL(국제 컴퓨터운영 표준자격) 등 취득한 국제 자격증도 14개에 이른다.

장흥실고는 재학생의 26%가 편부·편모 가정인데다, 저소득층이 25%를 차지할 정도여서 제대로된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자동차과 윤정현 교사를 비롯 최옥수, 이기선 교사 등이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관한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개설하면서 학습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종식 교장은 "처음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학생들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겠다'는 인사를 받기 일쑤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사랑을 듬뿍 보내주고, 과분한 관심을 가져줘 모든 게 변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 실업고는 컴퓨터 응용전자과, 자동차과, 정보처리과 등 3개 학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 학기부터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교명 개명작업과 함께 학습체계를 일신, 새로운 명문학교로 거듭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2009 보육사업 평가'
광산구 국무총리 표창

광산구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2009 보육사업평가'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지난해 8월 6천600여 세대, 8천여 명의 학부모에게 보육시설 및 정책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분석해 학습·급식·안전·인지발달 등의 보육 프로그램을 개선시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였다는 학부모들의 평가를 받았다.

구는 또 보육 프로그램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워크숍을 개최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광산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위해 평가인증 사례발표, 보육교사 처우 개선수당(1인당 월 2만원) 지급 등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고, 신분증 제작과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해 보육교사들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는 본량어린이집(원장 김태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 광산구가 전국적인 보육환경 우수지역임을 입증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50만 명품도시에 걸맞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저출산 해소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 보육관계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화순 하니움센터 '붓 조형물' 모작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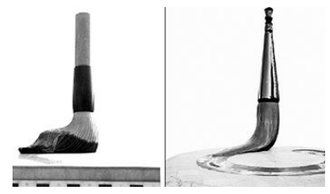
군의원 "서울 인사동 작품과 비슷"…군 "작가 본인 소품 바탕 제작"

화순군이 랜드마크로 건립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앞에 세워진 '붓 조형물'을 둘러싸고 모작(模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은 9일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앞에 세워진 붓 조형물은 5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에 의해 A조각가가 선정됐다"며 "A조각가가 선정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작가의 작품(작품명·'천상의 불꽃 일획을 긋다')은 지난 2007년 서울시 공모로 인사동에 세워진 B교수의 작품(작품명 '일획을 긋다')과 기법·제목·의미까지 비슷해 모방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B교수 작품은 높이 7미터에 청동재질로 제작됐으나, A작가의 붓 조형물은 높이 8m에 공주석(검정돌)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A작가의 붓 조형물은 창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해도 된다"며 "조각작품 구매예산으로 5억원이 책정됐지만, 미술감정협회와 전남대 예술연구소, 한국예술협회 등 3곳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감정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니움 센터 조형물(왼쪽)과 인사동 조형물.

군 관계자는 이어 "A작가가 지난 2003년 만든 소품을 바탕으로 조형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B교수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나주 황토 인삼 드세요"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김성태씨가 질좋은 황토밭에서 자란 인삼을 수확하느라 부산하다. 김씨는 1만5천㎡(4천500여평)의 인삼밭에서 6년근 인삼 1만3천㎏을 수확, 5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나주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질 좋은 황토밭에서 재배해 최고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